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 농민 공격...다리 물어

멧돼지가 불법으로 수렵을 하던 사냥꾼이 쏜 총소리에 놀라, 인근에 있던 농민을 들이받고 다리를 물어 부상을 입었다. 멧돼지에 사람이 공격당한 것은 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오후 3시15분께 순천시 월등면 월림리 매실밭에서 양모(여·60)씨가 남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에 왼쪽 다리를 물어 순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씨는 다리가 15cm 가량 찢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멧돼지는 양씨를 문 뒤에 곧바로 사라졌으며, 목격자들은 이 멧돼지가 몸무게 160kg이 넘는 거구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김모(39·광양시 광양읍)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경 5.5mm의 공기총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으며, 멧돼지는 김씨가 쏜 총소리에 놀라 양씨를 공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순천지역은 올해 멧돼지로 9천여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올 11월 말 현재 포획한 멧돼지는 17마리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김재기 前순천대학교 총장 고향가다 교통사고로 숨져



김재기(59·사진) 전(前) 순천대학교 총장이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29일 오후 2시15분께 보성군 조성면 웅전리 대전마을 앞 국도 2호선에서 김 전 총장이 몰던 60나85××호 그레이 승용차가 마주 오던 전남 87바57××호 4.5t 화물 트럭(운전자 윤모·36·해남군 해남읍)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전 총장은 트럭 운전사 윤씨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숨졌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이 순천에서 고향인 보성 쪽으로 달리다 졸음 또는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성 출신인 김 전 총장은 건국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1977년 순천 농업전문학교 전임강사에 임용된 후 기획연구실장·전체교수회의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22일 순천대 제4대 총장(2002~2006년) 임기가 만료돼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농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정희(57)씨와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순천 성가톨릭 병원 영안실(061-720-2316).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대학병원서 의사 흥기로 찢러

30대 “친구 부친 수술 잘못” 앙심 병원측 “고령으로 회복 못해 사망”

피습 대학교수 즉시 치료...생명 지장 없어

전남대병원 교수가 과거 치료를 했던 환자의 지인(知人)이 휘두른 흉기에 찢려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이 교수가 수술을 잘못해 자신을 아꼈던 친구 아버지가 숨졌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29일 폭력(흥기 등 상해) 혐의로 오모(37·광주시 광산구 월계동·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1동 2층 복도에서 회진 중이던 외과 김

모(57) 교수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섯 차례 찢른 혐의다. 오씨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으며, 김 교수는 피습 직후 치료를 받고 29일엔 예정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어렸을 적부터 따르던 친구 아버지 김모(74)씨가 지난 1월 김 교수에게 간 질환 수술을 받은 뒤 숨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가 범행 직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김씨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씨는 “친구 아버지가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면서 “가족들이 병원 측에 의료사고라고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에서 “10개월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고령으로 회복이 어려웠던 사람이지, 의료사고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 의료분쟁 왜 잡음 많다?

‘심사 조정위’ 강제성 없어 무용지물

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 조정위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전무하며, 지난해에는 1건이 접수됐지만 접수자가 자진 취소했다. (1명) ▲의사회(2명) ▲치과의사회(1명) ▲한의사회(1명) ▲간호사회(1명) ▲한의사회(1명) ▲간호사회(1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는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을 찾고 있지만, 환자 측이 승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 과실 여부를 전 문적인 소견으로 판단할 참고인이 결국 의사의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광주의 관문인 무진로와 제2순환도로를 잇는 유덕IC.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사업 4구간 중 일부인 유덕IC~서창IC간 2.48km 6차선 도시고속도로를 다음달 8일 조기 개통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 서창IC~유덕IC 다음달 8일 조기 개통

광주 제2순환도로 서창IC~유덕IC(2.48km·6차로) 구간(도면)이 다음달 8일 조기 개통된다.

이 도로는 광주시가 지난 2004년 5월 부터 민간 1천760억원·시비 763억원 등 모두 2천433억원 투입해 건설 중인 제2순환도로 4구간(서창IC~신가지구 4.58km) 중 일부다.

도로 개통 전 임시로 이용해 온 제방 도로 연결도로는 영구폐쇄되고, 상무로에서 공항 쪽으로의 좌회전도 금지된다. 시는 당초 내년 4월 중에 나머지 구간과 함께 개통하려 했으나 서창 지하차도 등의 교통체증을 감안해 개통 시기를 5개월 앞당겼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광주시의 관문인 무진로와 광·송간도로가 연결돼 풍암지구와 하남·월곡·북구 방향, 송정·공항 방향과 도심·북구·호남고속도로 방향

■ 제2순환도로 서창IC~유덕IC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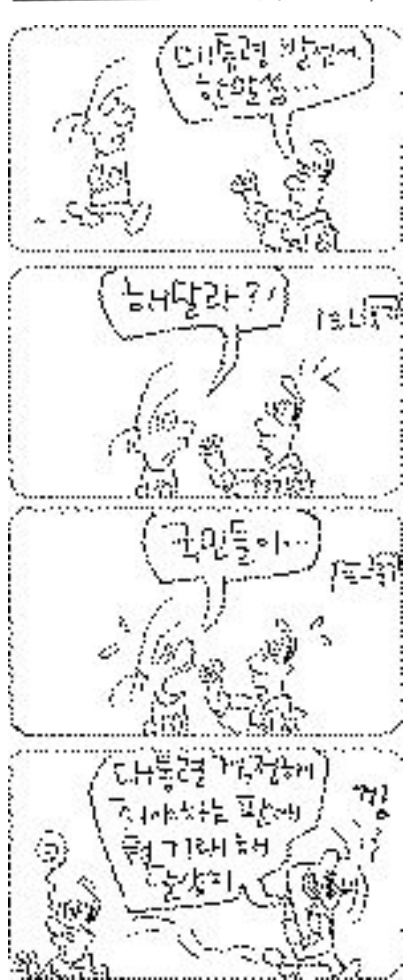


의 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통제됐던 서창 지하차도 통행이 재개 돼 서창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산월 분기점까지 내년 4월 완전 개통하고, 서창IC~신가지구 구간은 내년 7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말까지 제5구간 산월IC~문흥JCT(9.85km)을 완공, 총연장 37.66km의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나원침 (6989) 김창두



평소순도지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평면면적: 80~100 평방 미터 이상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폭행사건 피해 가족이 검사 폭행

○창원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려 온 사건 당사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검찰청 청사 내 A검사실에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려 온 당사자의 형이 검사의 목살을 잡고 목을 죄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그는 조사를 앞에서 지켜보다 동생들 때린 상대의 구속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검사가 “구속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등 반말들이지 않자, 이에 격분해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려던 검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기습적으로 폭행했다가 공무원행 방호로 불구속 입건.

○당시 검사는 한차례 뺄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검찰 측은 “뺄은 맞지 않았다”며 “폭행한 사람은 우울증세를 보이는데다,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 /연합뉴스

VIP전문 propose 전국 28개지사 대안 (3개지사) 전문점모집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전문직종사자, 기업근로자, 농·어민, 공무원 등

- 국내결혼: 초혼, 재혼, 실버혼, 커플결혼, 사별결혼, 이혼결혼
- 국제결혼: 유스웨딩, 이민, 고령인, 베트남, 중국, 몽골 등

한국인·외국인·이민·결혼·이혼·가족·법률·상담·서비스

(주) 웨딩스쿨 광주지사
062-350-6147 010-3545-1491

교육기 사대의 최소작!!
초절전형, 고효율 오일식·전기식 월빙 난로

35~75%의 난방 절약 효과

와레아 국내유일 정부조달형 난방

난방에 걱정 NO!
그림판, 생애 NO NO!!

내돈내산, 내돈내산, 내돈내산
와레아 난방기

전국무선판매망 구축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T. 062-431-4312
062-431-4314